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27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 3(1), 27~39, 2009. 4.

NGO · 지자체 · 지역민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도봉환경교실'을 사례로

김희경* · 장미정**

Program Evaluation of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NGO · Local Government · Local People: A Case Study of 'Dobong Ecoclass'

Heekyung Kim* · Meejeong Jang**

요약 : 환경교육은 전 지구의 당면과제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탄생했으며, 교육의 일상성과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 환경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NGO, 기업,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사회 환경교육은 예산 및 장소의 마련, 기획 및 운영 역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 제시되고 있는 것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모아 구현하는 협력은 사회환경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기 위해, NGO · 지자체 · 지역민이 협력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의 운영 및 협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환경교육의 운영 및 협력평가를 위한 틀을 개발했으며, NGO · 지자체 · 지역민 대표가 각각 자체평가를 하게 한 후, 연구팀이 기록을 분석 · 종합했다.

평가결과, '도봉환경교실'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현장 근무자와 행정 담당자 사이에는 세부항목 평가와 향후 방향 설정에 이견이 존재했다. 수평적 협력은 세 주체가 가진 역량을 효과적으로 모음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협력의 형태가 수직적인 형태를 띰으로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주체간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은 그 의미와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실행될 가치가 있다.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제도 마련, 건강한 협력, 체계적 평가의 시행, 다양한 모델의 제시가 요구된다.

주요어 : 사회 환경교육, 협력, NGO-지자체-지역민 협력, 평가, 프로그램 평가

Abstract : Environmental education was created to solve imminent environmental problems.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occur in daily life and assures continuity, holds an important key in this field. However, nonformal education run by NGOs, enterprises, local governments, et al. has many difficulties not only in location and fund securement but also in planning and management capacity. One method recently presented as a way of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is to implement the education program through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between central operating bodies. Cooperation realized by each organization pulling together their own resources and capacities could prove an efficient strategy for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evaluating the implications of a study case in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The study case is 'Do-bong Eco Class' that is currently carried out through cooperation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과정(Doctor's Cours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ciness@hanmail.net

**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Center), toetoe@snu.ac.kr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28

between the NGO, local government, and local people. To achieve this, we developed an evaluation frame focused on management and cooperation of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It was evaluated by each representative of the NGO, local government, and local people. We analyzed and synthesized all their evaluations.

The evaluation showed overall content with the management of the 'Do-bong Eco Class' program, but there were different opinions between field activists and the person in charge of administr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Horizontal cooperation was successful when the three institutions efficiently gather individual capacities among the central operating body, but vertical cooperation could be an obstacle in understanding and trusting each other.

Since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central operating bodies is full of meaning and possibility, it merits carrying out more constructive progress. Successful performance requires creating supportive bedrock policy, sound cooperation, and carrying out systematic evaluations and suggestions of various models.

Key words :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cooperation, the cooperation of NGO-local government-local people,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은 지역적인 친환경적 행동의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는 환경교육이다. 환경교육은 균형성, 통합성, 계속성, 일상성의 원칙을 갖는다. 즉, 환경에 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 환경 안에서의 교육이 균형성을 갖춰야 하고, 목표 · 내용 · 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학습자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학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최돈형 외, 2007). 이 중에서 계속성과 일상성은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지며,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다(권영락, 2005; 김희경, 2007; 이선경, 1993).

환경교육의 분야를 학교환경교육(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과 비형식환경교육(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 무형식환경교육(i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n)[1]으로 구분했을 때, 학교환경교육은 현실적으로 계속성과 일상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적용 가능한 분야는 학습자들이 시기와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비형식환경교육과 무형식환경교육 분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NGO 등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비형식환경교육, 즉 사회환경교육은 계속성과 일상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허정림 외(2001)는 사회환경교육이 "연령, 자격, 공간, 기간 등에 있어서 자유롭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함으로 사회환경교육의 장점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환경교육은 다양한 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시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단체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장소 마련, 지속적인 교육 실시,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장인영 외, 1999; 허정림 외, 2001),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 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환경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이다(김수연, 2007).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은 학교와 NGO, NGO와 지자체, NGO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하여 환경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역할에 따라 각 주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함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5)가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 중 하나인 "이해당사자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강한 연대"에도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은 그 실행의 효과성과 의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형태다.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환경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력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물은 더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29

욱 찾기 힘든데, 평가는 이후 프로그램의 관리와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반드시 고려되고 점검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자체가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환경교육은 교육정책평가라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계획과 실행에는 책무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 및 시행자의 학습을 돕고, 관리개선을 하며, 책임성을 할 수 있는 평가는(노화준, 2008)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팀은 지자체와 NGO, 지역민이 협력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그 운영과 협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협력환경교육의 성공요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환경교육의 외형적 확장과 함께 내실화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환경교육의 운영과 협력을 평가할 평가틀을 개발함으로, 사회환경교육의 바람직한 운영과 협력의 요소들을 추출한다.

둘째, 지자체와 NGO, 지역민의 협력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도봉환경교실'의 운영과 함께, 지자체, 단체, 지역민의 협력을 평가한다.

셋째,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협력

협력(協力)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국립국어원)"을 뜻한다. 영어 'collaboration' 역시 공동(co-)으로 일한다(labor)는 뜻을 가진 단어로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술적인 의미에서의 협력을 알아보면 남원석(2001)은 협력을 "공동으로 이해되고 확인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양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empowerment)는 개인 수준의 총합을 넘어 선다고 보았다. 즉, 협력은 각 주체의 자원으로 통해서 공동의 목적으로 이루며, 이 효과는 각 주체의 역량의 합 이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Leach *et al.*(2002)는 성공적 협력을 위한 요인으로 적절한 재원, 효과적인 리더십과 관리, 상호 신뢰와 협력적 참여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원과 각 주체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지자체 협력은 사회환경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행동강령으로 의제21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에도 각 지자체별로 민관협력기구인 의제21을 설치하였다. 이는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해인 2008년에 통과된 환경교육진흥법을 기반으로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협력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의 어려움은 주로 물적 인프라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 활용은 사회환경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 환경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한 장인영 외(1999)의 연구, 지역사회단체와 학교의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사례연구를 수행한 김수연(2007)의 연구,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의 협력사례를 통해서 사회환경교육가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한 Bainer(2000)의 연구가 있으나, 그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지자체가 협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협력환경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가 매우 제한돼 있다.

2. 평가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는 무엇이(목적, 결과), 어떻게(교육계획, 교수학습과정 및 방법), 어떤 상황에서(설비, 장비, 자료, 환경, 지원 등)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영역의 효율성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제기된 의문에 응답하는 일련의 체계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선 외, 2001; Bennett, 1984, Herman *et al.*, 1987; 한국환경교육학회, 2001, 재인용). 다시 말해, 교육이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육평가는 교육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목표실현을 위한 교육의 계획과 과정은 적절한지, 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a).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평가를 통해 진정 알고자 하는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0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Herman *et al*, 1987; 한국환경교육학회, 2001, 재인용). 평가를 통해 교육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고, 행동변화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개인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변화보다는 "교육과정의 계획과 전개 과정이 바람직한 교육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지 또한 공헌하고 있는지(이은주, 2003)"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교육평가의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평가모형들로는 목표중심 평가모형, 실험중심 평가모형, 의사결정 중심평가모형, 판단중심평가모형, 반론중심 평가모형, 전문성중심평가모형, 참여반응 중심 평가모형, 수혜자 중심 평가모형 등이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b).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중심평가모형' 중 의사결정의 성격 및 목적과 평가형식 간의 관계를 의도성과 실제성, 목적과 수단이라는 두 가지 차원과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투입평가(input evaluation)-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라는 네 가지 평가 형식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Stufflebeam(1971)의 CIPP모형을 운영의 평가틀로 삼았고, Mattessich(2001)가 제시한 협력의 요소를 추출해 협력의 평가틀을 설정했다.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평가틀이나 모형에 관한 연구로는 이은주(2003), 박미선 외(2001), 이재영 외(1995) 등이 있고, 평가모형을 활용한 프로그램 평가 사례연구로는 이선경 외(2002), 서우석 외(2007), 강유정 외(2004) 등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평가 연구로는 이숙임 외(2001), 장미정(1999)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평가는 주로 환경캠프나 체험학습, 공무원 연수,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이 하나의 교육모듈과 그를 둘러싼 교육적 활동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의 주체로서의 한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보다 큰 차원의 프로그램 평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I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의 이해

1) 연구 대상의 선정

지자체와 NGO, 지역민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대상의 선정 기준은 지자체의 경우 군 · 구 단위, NGO는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로 선정 기준을 삼았다. 군 · 구 단위의 지자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규모는 국가단위 보다는 시 · 도 단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장인영 외(1999)의 연구와 환경교육이 학습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권영락(2005)의 연구를 반영한 결과다. 즉, 학습자들이 장소적, 사회 · 문화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단위의 환경교육이 시행되는 사례가 적절하며, 따라서 지자체는 군 · 구 단위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전문성과 역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협력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다. 또한 대상 선정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3년 이상의 실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처음 시행되는 대상을 선정할 경우 그 운영 및 협력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사례는 '도봉환경교실'이다. '도봉환경교실'은 군 · 구 단위의 지자체인 '도봉구'와 환경운동연합 부설 교육전문기관인 '환경교육센터', 그리고 지역민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역기반의 환경교육기관으로,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내 · 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서울시 구 단위의 지자체가 상설 운영하는 유일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연구팀은 '도봉환경교실'이 본 연구를 위한 가장 적합한 대상지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지난 6년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오면서 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팀이 이를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 세 주체에 대한 이해

(1) 도봉구

도봉구는 서울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 단위의 지자체로, 인구는 375,975명(시 전체의 3.68%), 면적은 20.84km^2(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다(도봉구청 홈페이지).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80년대까지만 해도 공장들이 다수 들어서 있었으나,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젊은 서민층이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구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1

중 20위다. 녹지는 10.48km^{2}로 구 전체 면적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서울시 GIS포털시스템). 이는 구 내에 있는 도봉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며, 도봉산을 제외하면 거주지 주변 녹지 면적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즉, 도봉구의 녹지는 근린공원 등의 형태가 아니라, 도봉산이라는 단일 지역에 집중된 형태를 띤다. 현재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 도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서울 동북부 최고 웰빙도시 실현"이란 모토로 정책을 수립 · 추진하고 있다(도봉구청 홈페이지).

(2) 환경교육센터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는 환경운동연합 부설 교육전문기관으로 2000년 설립되었으며, 올해 초 부설기관이 아닌 협력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환경교육 체계화 연구, 지도자 양성, 네트워크 구축,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환경교육 차원에서의 교육활동을 시행하는 기관이다(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종로구 환경센터 내 '생태교육관', 강원도 춘천시에 '남이섬 환경학교'를 두고 있고, 서울시 도봉구 '도봉환경교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3) 지역민

본 연구에서 지역민은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도봉환경교실에서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연해설단을 일컫는다. 현재 약 30여명의 자연해설단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부 및 퇴직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3) 도봉환경교실에 대한 이해

'도봉환경교실'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3동 발바닥 공원 내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방학천이 흐르는 지역으로, 과거 무허가 판자촌이 들어서 있었으나, 정비사업 후 발바닥 공원이 조성되고, 갤러리 건물이 들어섰다. 2003년 도봉구 구의원의 추진으로 갤러리 건물이 '도봉환경교실'로 용도변경이 됐고,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도봉구에서 직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후 2004년부터는 위탁운영을 결정하고, 위탁운영자로 환경운동연합의 교육전문기관인 '환경교육센터'를 선정했다. '환경교육센터'는 2007년에 이어, 2009년에도 재위탁을 받아 2011년까지 운영위탁을 받은 상태다.

'도봉환경교실'은 "지역자원(환경자원, 인적자원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교육을 통한 친환경적인 인식의 고취와 생활 속 실천으로 목적으로(도봉환경교실, 2007)"한다. 발바닥 공원 내 147.86m^2(약 45평)의 면적에 시청각교실, 주민이용 환경휴게실이 있고, 야외에 자연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보유하고 있는 환경도서는 1,500여권에 인터넷 PC 2대, 전시물, 시청각 교재 등이 구비돼 있다. 홈페이지(www.ecoclass.or.kr)를 통해 프로그램 일정을 공지하며, 도봉뉴스라는 지역 신문에 매월 프로그램 홍보를 홍보하고 참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도봉환경교실'은 도봉구청이라는 구단위의 지자체, 환경교육센터라는 NGO, 그리고 자연해설단이라는 지역민, 세 주체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도봉구청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구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도를 마련한 데서 출발한다. 처음 이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 역시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담당자가 교체되었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 '도봉환경교실'의 운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후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도봉환경교실 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산업환경과 환경관리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의 역할은 예산 및 장소 지원,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의 관리, 감독이다. 환경교육센터는 개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기반으로 실행해 보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도봉환경교실'을 이러한 실행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도봉환경교실'에 두 명의 간사를 파견한 상태이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등 실무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해설단은 대부분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이들은 대부분 생태와 환경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현재 약 30여명의 자연해설단이 '도봉환경교실'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자연체험교육프로그램, 생활환경교육프로그램, 과학체험교육프로그램, 방학특별교육프로그램, 단체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평가과정 및 원칙

본 연구는 사회환경교육의 운영과 협력을 평가할 평가틀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지자체, NGO, 지역민의 협력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도봉환경교실'의 운영과 협력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격적인 평가틀 개발과 평가에 앞서 본 연구팀은 평가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2

의 과정과 원칙을 설정하였다. 평가과정은 Herman 등(Herman *et al.*, 1987; 이선경, 2002, 재인용)이 제시한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절차를 따라,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경계를 설정하고, 평가방법을 선택한 후,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평가 과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평가의 원칙은 연구 진행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평가항목의 균형과 타당성을 위해 평가틀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2. 평가 시행은 각 주체들의 대표들이 실시하는 자기평가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와 평가요구를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유예림, 2008).
3. 평가 내용은 연구팀이 평가 시행자와 면담한 것으로 한다. 면담을 통한 평가는 양적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각 주체의 자기평가 후, 연구팀이 인터뷰 내용 및 문서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행한다. 이는 세 주체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고, 종합함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평가틀의 개발 및 시행

본 연구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협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틀과 협력에 대한 평가틀, 두 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평가틀은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Stufflebeam(1971)의 CIPP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

〈표 1〉 사회환경교육 운영평가 문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상 황	요 구 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가?(도봉구청, 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목 적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투 입	참 가 자	의도했던 목적에 맞게 참가자가 구성되었는가?
		다양한 참가자로 구성되었는가?
	강 사	내용, 대상에 맞는 전문성 있는 강사가 선정되었는가?
		운영과 활동을 위해 충분한 강사가 확보되었는가?
		강사를 위한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기획자와 강사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가?
	장 소	활동 및 접근성에 적합한 장소인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인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산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
		예산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
	프로그램 계획	목표에 일관되게 내용,방법,평가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
과 정	내 용	학습자의 흥미, 발달단계가 고려되었나?
		목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
		공평성, 정확성, 지역성, 일상성, 독창성, 직접체험과 감수성이 고려되었는가?
	방 법	다양하고 적절한 교수 · 학습법, 자료 · 매체가 사용되었나?
	평 가	다양하고 적절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었나?
산 출	참가자 성취도	참가자의 성취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참가자의 인지적, 정의적, 의욕적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는가?
	프로그램 평가, 개선의지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분들이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활성화 돼 있는가?
	계획의 실천도	사전계획과 실제 운영결과가 일치하는가?
		부수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예산집행일치도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가 일치하는가?
		예산집행결과가 바람직한가?
	환경영향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했는가?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3

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본 평가틀로 삼고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이은주(2003)의 환경교육프로그램 평가항목을 참고하고, 전반적인 연구대상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작업을 하였다. 협력을 위한 평가틀 확보를 위해 역시 선행연구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그 중 Mattessich(2004)가 제시한 협력을 위한 요소가 본 연구의 평가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연구대상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후, 본 연구팀은 연구대상의 상황에 맞게 정리한 운영에 대한 평가틀과 협력에 대한 평가틀을 전문가 여섯 명[2]에게 검토 의뢰를 했다. 전문가 검토 후, 문항 수정을 통해 최종 정리된 평가항목은 운영에 대한 평가문항 29개, 협력에 대한 평가문항은 21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2〉 참조).

최종 작성된 평가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팀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담당주임, 환경교육센터 도봉환경교실장, 자연해설단 前회장을 각각 따로 만나 각자 자기평가를 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각 평가자에게 평가문항에 따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평가자가 자유롭게 구술하도록 했으며, 연구팀은 평가자의 구술 내용을 현장에서 기록했다. 평가질문은 준비된 평가문항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필요시 추가 질문을 함으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각 평가자와의 면담기록은 이후 연구팀이 목록에 따라 정리를 했으며, 각 내용을 비교하고 검토한 후,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했다.

IV. 평가결과

1.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1) 상황

요구도에 대한 부분에서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 자연해설단 모두 '도봉환경교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청은 '도봉환경교실'이 '웰빙도봉' 추구에, 환경교육센터는 지역기반 교육모델 실행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각 주체의 사회적 요구도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각 주체 당사자의 요구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 주체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가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도봉구청은 '도봉환경교실'의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내비쳤다.

〈표 2〉 협력평가 문항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환 경	협력 역사	각 주체는 자주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해왔는가?
	집단의 정당성	내 · 외부적으로 이 주체들이 이 일을 하기에 옳은가?
구성원 성격	상호존중,이해,신뢰	이 협력에 들어온 주체는 서로 신뢰하는가?
	구성원 적합성	이 협력의 구성원들은 이 협력에 적합한 인력인가?
	이익 성취	이 협력에 들어온 주체들은 각자의 이익을 얻는가?
	의견조정의 능력	이 협력 구성원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타협 가능한가?
		이 협력 구성원들은 모두 이 협력이 성공하길 원하는가?
과정과 구조	참여의 다양한 층위	협력 참여 주체의 결정자는 자신의 조직 전체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가?
	유연성	의사결정시 유연성이 있는가?
	명확한 역할	각 주체의 사람들은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한가?
	적합성	이 협력은 자금, 정치적 분위기, 리더십 변화 등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발전 페이스	이 협력 주체들은 바른 페이스에 따라 적합한 양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의사소통	열린 의사소통	이 협력 주체들은 서로 열린 의사소통을 하는가?
		각 주체들은 필요한 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공식,비공식소통	구성원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목적,목표	굳건한목적과목표	각 주체들은 협력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비전의 공유	각 주체들은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에 헌신하는가?
	독특한 이유	협력 프로젝트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한 주체가 수행하기에 어려운 것인가?(=즉 한 주체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가? 협력이 있어야 성취 가능한 일인가?)
자 원	자원의 충분성	자금, 인력, 재료, 시간 등의 자원이 이 협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리더십	각 주체의 리더들은 훌륭한 협력의 기술을 갖고 있는가?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4

2) 투입

'도봉환경교실' 참가자의 구성과 다양성에 대해 세 평가자 모두 만족감을 표시했다. 강사의 전문성 부분에서 도봉구청은 만족했으나, 환경교육센터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연해설단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며, 개인별 수준차를 평준화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사의 숫자에 대해서 도봉구청은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일반 프로그램은 그 숫자가 적절하나, 학교에서 집단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 대비 학습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강사를 위한 교육 및 기획자와 강사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세 평가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장소에 대해 세 평가자는 모두 현재의 장소가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장소이며,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활동 및 접근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3]. 이에 세 주체는 모두 도봉환경교실의 이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도봉구청은 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이전이 규모 확장 및 외부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환경교육센터는 이전이 프로그램 다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등 이전의 목표 및 이후 프로그램 운영 성격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예산의 경우, '도봉환경교실'의 연간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책정돼 있었다. 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행사실비로 책정되었고, 이에 대해 세 평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인건비의 비중에 대해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 사이에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도봉구청은 인건비의 비중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보았고, 환경교육센터는 적정하다고 보았다. 운영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연해설단은 이에 대한 정보 습득이 부족하여,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 평가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자연해설단은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 계획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도봉구청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우나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할 것을 요구했다.

3) 과정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했는지, 목표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는지, 공평성, 지역성, 일상성 등 다양한 부분들이 고려됐는지에 대해서는 세 주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수 · 학습법 및 매체 활용에 대해 자연해설단은 만족을 보였으나, 도봉구청은 이에 대한 더 다양한 활용을 요구했고, 환경교육센터는 교구를 직접 제작 · 조달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전문가 조달을 요구했다.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평가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세 평가자 모두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4) 산출

참가자의 성취도에 대한 부분에서 세 평가자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단, 환경교육센터는 지속적, 지역성을 강조한 프로그램 실행으로 참가자에 대한 성취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평가 결과가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도봉구청은 스스로 미진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으나, 자연해설단은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환경교육센터는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각 주체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의사소통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도봉구청은 환경교육센터와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자연해설단은 이에 대해 환경교육센터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자의 경우 평가에 따른 개선이 비교적 잘 이뤄지지 않고, 후자는 잘 이뤄짐으로 이러한 상이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계획과 실제 운영의 일치, 부수적 효과에 대해 세 평가자는 모두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으나, 부수적 효과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 평가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학습대상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반응이 높은 점을 부수적 효과로 삼았으나, 도봉구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구청 내부인의 긍정적 평가[4]를 부수적 효과로 보고 이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예산편성과 집행의 일치도에 대해서는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가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프로그램 운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세 평가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밖에 기타 의견으로 도봉구청은 담당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관심이 증대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통 구청 등 관공서는 전시행정에 집중하는데, '도봉환경교실'은 내실이 있어서 좋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밖으로의 홍보가 부족해 저평가되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어느 정도의 전시행정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표시했다. 환경교육센터는 자연해설단을 자원한 봉사자가 초기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문제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5

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도봉환경교실'에 대한 각기 다른 주체별 평가자는 운영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내용적 튼실함과 참가자의 긍정적 반응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참가자를 대면하는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평가 내용이 공통된 것이 많았으며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세부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지원 및 관리 · 감독의 업무를 맡은 도봉구청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평가가 부족했으며 앞의 두 평가자와 몇몇 부분에서 다른 평가를 내린 경우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운영에 따라 현재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더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도봉구청은 성공했으므로 양적 규모를 더 키우고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할 것을 희망함으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갈등을 예고했다.

2. 주체 간 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1) 환경

협력의 역사 및 주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세 평가자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도봉환경교실'의 운영을 환경교육센터에 위탁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으로 협력을 수직적인 상하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교육센터는 수평적 관계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직적 관계이며 이것이 협력의 큰 한계점이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구성원 성격

구성원의 신뢰 및 적합성에 대해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서로 굳건한 신뢰감과 적합성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도봉구청과의 신뢰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행정기관인 도봉구청이 정치적 · 정책적 변화를 많이 겪으며, 또한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데 따라 꾸준한 신뢰관계 구축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주체별 이익에 대해서는 세 주체 모두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환경교육센터는 지역기반 교육모델 구축이라는 목표의 성취,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보였고, 자연해설단은 평생교육으로서 배움에 대한 욕구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보였다. 도봉구청 역시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의견 조정 능력에 대해 세 평가자 모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봉구청은 보다 거대한 위계적 조직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의견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3) 과정과 구조

협력에 대해 각 주체의 층위가 다양하게 참여하는지 여부, 각 주체가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 평가자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유연성 및 의사결정의 명확성에 대해서 환경교육센터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따금 일어나는 도봉구청 측의 일방적 요구 및 결정이 존재하는 점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청 담당자도 공감하고 있었다.

협력이 자금, 정치적 분위기 등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도봉구청과 자연해설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환경교육센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봉구청의 경우 단체장이나 책임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교육사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거나, 환경교육센터의 경우 2008년 말에 발생한 모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정치적 상황 등의 외적인 변화에 도봉구청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협력의 분위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4)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에 대해서 세 평가자는 모두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경로는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 자연해설단이 통합되지 않고, 환경교육센터가 도봉구청과 환경교육센터 사이에 위치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도봉구청은 주로 환경교육센터와 의사소통을 하고, 자연해설단 역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환경교육센터와 하고 있었으며, 도봉구청과 자연해설단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5) 목적과 목표

목적, 목표의 공유에 대한 부분에서 세 평가자는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이 부분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봉구청이 다른 의견을 보임으로, 이로 인한 주체 간 갈등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협력에 필요성에 대해 세 평가자 모두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감을 보였으며, 환경교육센터와 자연해설단은 앞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6

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계속 발전하기를 희망했다.

6) 자원

자금, 인력, 재료 등의 자원에 대해 도봉구청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나, 환경교육센터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이는 도봉구청은 규모를 키우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고, 환경교육센터는 현재의 작은 지역단위의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력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의 협력에 대해 세 평가자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런 평가를 내렸다. 이는 도봉구청 및 담당자의 의지, 환경교육센터의 실행역량, 자연해설단의 열정이 조화를 이뤄 협력을 이뤄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력의 형태가 수평적 협력이 아닌 수직적 협력이 됨으로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의 과정을 세 주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교육센터가 중간에서 두 주체와 소통함으로 환경교육센터에 부담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구 단위의 지자체, NGO, 지역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도봉환경교실'의 운영 및 협력을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도봉환경교실'이 갖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무엇보다 '도봉환경교실'은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의 가능성을 확인시킨 사례다. 장소, 예산 등의 자원은 갖고 있지만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역량이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NGO, 지역을 이해하고 자원봉사의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계획 역량이나 구심점이 부족한 지역민들이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장점을 나누고, 단점을 보완한 이 협력 사례는 사회환경교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력이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협력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도봉구청이라는 조직이 이 프로그램을 협력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협력적 수행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도봉구청이 환경교육센터라는 단체에 운영위탁을 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적으로는 위탁의 관계라 하나, 수평적 협력이 갖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 내용적으로 수평적 협력을 이룬다면 더 큰 효과를 이뤄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정부 사업의 추세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협력식 거버넌스 구성이 강조된다는 점, 협력은 각 주체 역량(empowerment)의 총량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안만홍, 2006),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이해당사자 사이의 소통(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진정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평적 협력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다.

둘째, '도봉환경교실'은 지역사회기반의 안정적 사회환경교육을 실현한 사례다. 이는 구 단위의 지자체와 지역민이 주체의 구성원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기반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실행을 희망하는 환경교육센터의 협력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구 단위의 지자체와 NGO, 지역민 협력으로 실현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은 '도봉환경교실'이 현재 유일한 사례인데, '도봉환경교실'의 성공적인 운영은 다른 구 단위의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기반의 사회환경교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도봉환경교실'은 각 주체가 협력의 목적을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 사례다. '도봉환경교실'의 설립 목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도봉환경교실,2007)"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협력에 참여한 세 주체 모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활성화" 및 "대중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도봉구청은 참여인원이라는 양적 지표를 중요시하여 활성화 및 대중화가 많은 숫자의 참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환경교육센터는 질적 지표를 중요시 하여 다수가 일회성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소수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와 NGO의 태생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자체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NGO는 운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적은 수라도 질적 수준을 높여 이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변혁을 이끌도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각 주체의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7

기본적 성향 차이로 인해 '도봉환경교실'의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물론 주체가 지향점이 다르고, 각기 다른 협력의 목적을 갖고 참여했을 수는 있으나, 상이한 목적은 지속적인 협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모든 주체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도봉환경교실'은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다. 본 연구물의 전반부에서 지적했듯이 사회환경교육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 장소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 또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봉환경교실'의 시작은 구의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으로 시작된 것이며, 제도가 뒷받침 된 후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지가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협력의 주체 중 예산과 장소 등 기본적인 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확실한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도봉환경교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도봉환경교실'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역량이 중요함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도봉환경교실'은 환경교육센터라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이들의 노하우가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환경교육센터는 도봉구청과 자연해설단과의 연결 역할을 하며 협력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협력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 판단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사회환경교육의 운영과 협력의 평가틀을 개발함으로 사회환경교육의 바람직한 운영과 협력의 요소들을 추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봉환경교실'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봉환경교실'의 의미를 도출했다. 이에 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주체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반 사회환경교육은 그 효과 및 의미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며, 이를 더욱 발전 ·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가 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는 것은 지역기반 사회환경교육의 지속적인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며, 담당자가 책임 있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기간을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하다. 참가 주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업무를 분담하며, 공동권한, 공동책임을 지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 됐을 때, 각 주체는 서로 강한 신뢰감으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의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시행에 따른 평가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도봉환경교실' 역시 시행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진 바가 없었다. 평가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진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며, 특히 파급력과 책무성을 띠는 지자체의 정책이 포함된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더욱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규모에 따라 협력의 모델이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협력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면 규모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모델이 준비돼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협력의 주체를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지자체, NGO, 지역민이 참여하는 협력이었지만, 여기에 학교, 기업 등의 다양한 주체도 참여 가능할 것이다. 이는 각 주체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탄생을 가능하게 하며, 환경교육의 범위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봉환경교실'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평가한 것이므로 일반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각 주체별 자기평가를 하게 했으나, 이로 인해 자기평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NGO, 지역민 협력 사례를 평가함으로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 협력의 중요성 및 발전적인 협력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환경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보인다. 앞으로 지자체, NGO, 지역민 협력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 간 협력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이것의 구체적인 효과가 심도 있게 연구 · 논의될 필요가 있다.

주

1) – formal education: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8

- nonformal education:형식적인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 활동. 사회환경교육.
- informal education:모든 사람이 대중매체, 부모, 개인적 경험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적 영향을 받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Fortner, 2001; 이선경 외, 2001 에서 재인용).

2) 전문가 6명은 환경교육연구자 3명, NGO의 환경교육담당자 1명, 생태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명, 생태체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1명으로 구성했다.
3) 현재 도봉환경교실은 지하철에서 마을버스로 10분 정도 이동한 뒤, 도보 3분 정도가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4) 이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구청직원 및 가족의 평가를 일컬으며, 특히 구청 소속 고위공무원 가족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강유정, 조은정 (2004). 사회환경단체의 중등학교 환경클럽활동 지원사례 연구: 〈청소년 환경동아리 한마당〉을 사례로, **환경교육**, 17(2), 122-133.

권영락 (2005). 장소기반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수연 (2007). 학교와 지역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협력 실행과정에 대한 연구:교사와 안내자의 파트너십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희경 (2007). 체험대상의 시각적 친숙성 유무에 따른 감정이입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원석 (2001). 지방정부와 주민운동조직의 협력에 대한 평가:임파워먼트(empowerment)와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7, 178-208.

노화준 (2008). 정책평가론. 법문사.

도봉환경교실 (2007). 2007년 도봉환경교실 발표자료.

박미선, 지은경, 김재현 (2001). 자연체험교육 프로그램 평가틀에 관한 연구: 2001 그린캠프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14(2), 51-67.

안만홍 (2007). 지방자치단체의 체험환경교육 시행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예림 (2008).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책 평가 연구:PUPA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선경 (1993). 학교 환경교육의 문제점과 자기환경화를 통한 환경교육전략의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선경, 이재영, 김인호 (2001).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평가: 한 · 중 · 일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논문집**, 24, 105-115.

이선경, Krasny, M. E. (2002) 절차 모형에 따른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뉴욕주의 외래종 관리 프로그램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15(1), 83-100.

이숙임, 강명희, 남상준, 박석순, 성효현, 최돈형, 허 명 (2001). 사회환경 교육과정의 표준화 모형 및 통합 프로그램의 평가, **환경교육**, 14(2), 76-94.

이은주 (2003). 분석적 위계과정(AHP) 기법을 활용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재영, 이선경, 김인호, 정진영 (1995), 위계적 총체성과 개방적 상호의사소통에 의한 환경캠프 프로그램 평가방법, **환경교육**, 8, 107-121.

서우석, 김진모, 전영욱 (2007). CIPP 모형에 기반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 **환경교육**, 10(1), 106-117.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a), 교육학 대백과사전①, 서울 : 하우동설, 791-805.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b), 교육학 대백과사전③, 서울 : 하우동설, 2655-2665.

장미정 (1998). 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물, 대기 분야의 표준화 모형으로서의 모듈개발 및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인영, 조경숙 (1999). 환경교육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민간환경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중심으로. **환경교육**, 12(1), 336-34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위한 국가 추진 전략 개발 연구.

최돈형, 손연아, 이미옥, 이성희 (2007). 환경교육 교수 · 학습론. 교육과학사.

한국환경교육학회 (2001). 청소년 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방안 연구.

허정림, 최경희 (2001).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현황-담당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를 통하여. **환경교육**, 14(1), 56-65.

Bainer, D. L., Cantrell D., & Barron, P. (2000). Professional Development of Nonformal Environmental Educatiors Through School-based Pastnerships.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ion*, 32(1), 36-45.

Leach, W. D., Pelkey, N, W., & Sabatier, P, A. (2002). Stakeholder Partnerships as Collaboration Policymaking: Evaluation Critiera Applied to

03김희경(27~39)2010.2.1612:27PM페이지39

Watershed Management in California and Washingto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1(4), 645-570.

Mattessich, P. W., Murray-Close, M., Monsey, B, R. (2001). *Collaboration: What Makes It Work*. 2nd edition. Amherst H. Wilder Foundation.

Stufflebeam, D. L. (1971). The relevance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accountability,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5, 19-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서비스: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09년 6월 8일 최종방문).

도봉구청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2009년 6월 11일 최종방문).

도봉환경교실 홈페이지: http://www.ecoclass.or.kr/ (2009년 6월 11일 최종방문).

서울시GIS포털시스템: http://gis.seoul.go.kr (2009년 6월 11일 최종방문).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topia.or.kr/ (2009년 6월 11일 최종방문).

교신 : 김희경,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박사과정
(iciness@hanmail.net, 02-880-8938)

Correspondence : Heekyung Kim, Doctor`s Cours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
151-748 (iciness@hanmail.net, 02-880-8938)

최초투고일 : 2009년 2월 19일
최종접수일 : 2009년 4월 14일